

자료로 집대성된 우리문학의 내용증빙

권영민 지음 「韓國近代文人大事典」

金鍾會

문학평론가

이 사전은 시인이나 작가 개인의 인명을 구분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인 인명사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한편, 그 문인의 생애와 작품경향 및 작품목록집과 연구목록집의 기능까지 겸함으로써 문학사사전의 역할도 감당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지금까지 문학관계 사전에서 제외됐던 남·월북 문인들도 폭넓게 포함, 유실된 문학사의 복원이라는 과제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는 역사라는 어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래 전의 역사란 세월의 경과로써 어두워졌으므로, 진실을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명사들에 대한 아첨으로 사실이 흐려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학사가 문학의 역사라고 한다면, 보편적인 역사의 해석에 소용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식이 그대로 옮겨져 적용되어도 큰 무리가 없을 터이다.

문학사 역시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본래의 사실이 흐려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의 연구자들은 충실한 자료가 없이는 지나간 시대의 시인이나 작가에 대해 날카로운 평가를 부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더구나 지면을 통해 활자화되어 있는 시·소설 등의 작품에 있어서는 원전의 확정이나 활용에 별다른 장애가 없겠지만, 작가 자신에게로 향하는 시선이 요구될 때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의 갈급함이란, 연구논문을 작성하면서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절박함을 잘 느껴 알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문학평론가 권영민교수가 펴낸 「한국근대문인대사전」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문학사의 연구와 정리에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업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권교수는 이 사전의 편찬을 시도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문학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문학사적 의미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학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연구에서 자료의 정리작업은 흔히 기초적인 준비작업으로 간단히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기초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학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가끔 실증적인 작업의 복잡한 과정을 귀찮아 하거나, 당위론적인 결론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구나,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 분단 상황 속에서 6.25전쟁까지 겪는 동안 많은 문학 관계 자료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손실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남아있는 자료조차 제대로 목록화하지 못한 채 방치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권교수의 이 역작은 그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당위적인 요청을 가진 작업이라 하겠는데, 기실 그 방대한 자료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야 할지 범상한 사람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을만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인명사전이자 문학사사전

이 사전은 「한국근대문인대사전」 1권과 「한국현대문인대사전」 2권 등 모두 3권으로 기획되어 있으며, 이번에 발간된 것은 근대편 1권이다.

근대편은 신문학운동의 발흥기인 1900년에서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단에 등단하여 활동한 시인·작가·평론가 등 문인들을 인명별로 항목화하고 있다. 등단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905년 이전에 등단하고 그 이후에 작품활동을 한 문인들까지를 포함하여 이 책에 실린 문인은 총 395명. 강경애에서 황순원에 이르는 문인들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고 작가의 생애와 문학작 평가, 작품목록, 관련연수목록 등을 포괄하여 수록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문학 관계 사전에서 제외되었던 남·월북 문인들을 포함함으로써, 유실된 문학사의 복원이라는 과제에 다가서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시인이나 작가 개인의 인명을 구분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인 인명사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한편, 그 문인의 생애사와 작품경향 및 작품 목록집과 연구 목록집의 기능을 겸함으로써 문학사사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한편 11월에 발간 예정인 현대편은 해방 직후부터 1980년대 말 즉, 1989년까지 등단한 문인 2천여명을 담은 자료집으로서 우리 문학 사상 초유의, 그리고 가장 큰 부피의 문인사전이 되게 된다.

1980년대 말에 등단한 문인이라면, 이제 처음으로 문단에 발을 들여놓았으면서 차기의 우리 문학을 계승할 세대에 속하는데, 이들에 까지 수록 범주를 확장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다. 이들에 대한 자료 역시 알음알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예지나 창작집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었을 것이며, 때로는 본인들에게 직접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권영민교수

거쳤을 듯 싶다.

권교수가 이와 같은 사전의 편찬이 가능할 수 있게 한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시작한 것은, 한국 현대문학의 연구에 뜻을 두고 대학원에 진학한 1970년대 초기부터였다고 한다. 그동안 줄기차게 서재와 강의실만을 지키면서 근대편만 해도 자료카드 5만장, 2백자 원고지 10만여장에 달하는 이 일의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모든 문인들의 개별적인 문필활동을 총정리한다는, 일견 무모해 보이기가 하는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 과정 중에는 두 차례의 중간보고서에 해당할 만한 수확이 있었다. 1981년 단국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한국현대비평사 자료목록」과 1987년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한국 현대문학사 연표 I·II」가 그것이다.

문인대사전은 이러한 기초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작품 연보와 연구사적인 자료를 보강하여 문인 개인별 활동의 자료사적인 체계화를 이루어 내었다고 하겠다.

카드 정리작업을 시작한 1970년대 초기부터 계산하면 장장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권교수가 이 작업과 병행하여 집필하기 시작한 「한국현대문학사」도 초고를 완성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니, 그의 이 20년은 산술적 헤아림으로서의 20년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지 않을까.

문인 개인별 활동의 자료사적 체계화

모르긴 하지만 권교수가 이처럼 방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배면에는, 우리 문학의 양적인 풍부함이나 질적인 우수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터이다. 근대문학 이래 1백년에 이르는 그 문화전통의 확고한 가치평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애당초 완성된 작업의 형상을 짐쳐보는 밑그림이 그려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편까지 합하면 자료카드가 모두 15만장에 달하는데, 처음에는 이를 일일이 손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 4년전부터 비로소 컴퓨터에 입력하여 활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처럼 복사기라도 있었다라면 작업이 한결 수월했을 텐데 수공업시대처럼 베껴써야 했다고 권교수는 그간의 고충을 말했다.

또 하나의 어려웠던 문제는 소장 자료를 찾아다니는 일이었다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과 국립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은 물론 지방의 개인 소장가나 연구자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다고 하면 그 고달픈 여정을 짐작할 만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자료들이 개방되어 있었는데 근래에는 자료보존의 차원에서 특수자료로 분류되어 쉽게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아닌게 아니라 오래된 자료를 자꾸 펼치고 복사하느라 열을 썩고 하면 쉽사리 망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복제본으로 열람을 대체하기도 하고 필름으로 만들어 영구자료화 하기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보아야 할 자료는 이 방면에 특히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는 그의 소감이다.

사전을 출간해 줄 출판사를 찾는 일도 수월하지 않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수억대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이 덩치큰 일에 선뜻 응할 출판사가 쉽게 나타났을 리가 없다. 출간을 맡은 아세아문화사는 한국고전소설전집이나 한국개화기문학총서 등을 영인본으로 발간해 온 경험의 축적과 한국학에 관련된 고서 목록의 발간 및 사전류 간행 등의 실적에 힘입어, 문인대사전의 발간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와 그 효용성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에서는 이 편찬사업을 회사 설립 2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 출판물로 삼겠다고 밝혔는데, 자료사의 측면에서는 한국학에 대한 기본적이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기초적인 정돈 작업이며, 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종의 한계상황을 극복한 노력의 결정체라고 덧붙여 말한 바 있다.



근대편 사전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점유한 작가는 허보 염상섭. 염상섭 항은 모두 20면에 달하는데, 이 작가가 소설창작과 평론활동을 겸하여 글을 썼고 그 분량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데서도 기인하겠지만, 참고자료만도 8면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평문들을 충실하게 추적하였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문예지에 발표된 글들은 물론이고 각 대학의 학위논문들까지 망라되어 있어 염상섭 연구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신체호·장지연 등도 편입

시인이나 작가에 대한 연구에 있어 당대의 문예지나 학술지에 발표된 비평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연구는 후대의 종합적인 연구저서나 학위논문을 통해서 시도되는 것이라 하겠는데, 그런 점에서 연구서지에는 꼭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할 때 근대편에 수록된 김동리나 황순원 항을 보면, 문예지 중심의 연구실적은 충실하게 파악되어 있으나 후대들의 연구는 누락이 많아 아쉬운 감을 남기게 하였다.

개화기의 신소설 시대와 관련하여, 이인직·안국선·이해초 등의 작가에 앞서 박은식·장지연·신체호 등 애국계몽운동가들을 신문학의 첫 세대로 인정하여 문인으로 수록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박은식이 「서사건국지」를 써서 스위스의 독립과정을 소설화하고, 장지연이 「애국부인전」을 통해 잔 다르크의 생애를 그린 소설을 변안했으며, 또한 신체호가 「을지문덕전」 「이순신장군전」

에서 애국사상의 계몽에 주력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문인이라기 보다는 계몽사상가라는 호칭으로 불려져 왔으며, 그 작품은 본격적인 문학논의나 연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형편이다. 권교수는 이들의 문학사적 기여를 한국문학의 주제적 근대화 노력이 빚어낸 성과로 받아들여 과감하게 문인의 대열에 합류시켰다.

지난해 4월 정지용·김기림에 대한 해금에 이어, 7월 한국문학사의 주요한 문인으로 거론된 박태원·이태준·현덕·임화·안희남·이용악·백석·오장환·김남천·박노갑·설정석·최명익·박팔양 등 남·월북 작가 1백20여명의 해방전 작품에 대한 공식 출판이 허용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한 일이었다. 이들에 대한 해금의 당위성은, 궁극적으로 이들의 비중을 제외하고서 당대 문학의 전모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문학적 기술상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금이 이루어진 이후에 카프의 계급문학에 대한 비평적 평가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었고, 이와 대립했던 순수문학의 위상도 다시 조명될 수 있었다. 백석·이용악·오장환·박팔양 등의 시문학을 통하여 사장되었던 민족적 정취와 향토성 짙은 정서를 접할 수 있었으며, 계급해방이 곧 민족해방이라는 기치 아래 일제의 식민체제를 극복하려 했던 사회주의 문학운동이 우리 문학사의 각론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30년대 말 비평의 최고수준에 도달했던 임화와 김남천이 문학사의 전면에 나서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열악한 입지에 있는 희곡문학에 송영·함세덕 등이 참가됨으로써 어느 정도 절름발이 문학과 안타까운 외형이 치유될 수 있었다.

'현대편' 편찬에 거는 기대

권교수의 근대편 사전에서 이들에 대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수록됨으로써, 그간의 백화난만한 논의들이 한 켤미에 꿰어진 구슬들처럼 제 위치를 찾게 된 것 또한 이번 편찬의 공로라 할 수 있겠다.

남·월북 문인들이 이처럼 근대편에서 문학사의 복원과 함께 우리 문학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될 수 있었음에 비교해 볼 때, 현대편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여전히 완강한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분단시대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분단 이후 북한에서 등단하여 작품활동을 해온 현역작가들의 수록이 난망

하다는 사실이다.

권교수는 김일성대학에서 북한문학사를 정리한 것이 있지만 작품 목록만 나와있고 출처가 밝혀지지 않아 현대편 사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의 문화계가 함께 짐을 지고 그 해결의 방안을 찾아 애써야 할 관건이라는 당위론적 설명을 남기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앞으로 발간될 2권의 현대편은 과거의 근대문학사가 그래왔던 것처럼 더 보강되어야 할 미완의 민족문학사라는 과제를 걸머지게 되리라 본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짚어두어야 할 사항은, 한반도의 지역적 범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말 작품의 창작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동북3성과 소련 본토 및 사할린에 거주하는 조선족 문인들의 작품, 구주나 미주대륙 등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작품이 우리 문학사에 편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이다.

권교수 자신도 간간 여러 차례의 글을 통해 연변지방의 문예작품을 언급한 바 있고, 실제로 금년 6월 필자가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하여 그곳의 문인들을 만나 보았을 때, 그들은 권교수의 그와 같은 글들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단 한 개인의 소임으로 귀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만만찮은 사전 편찬 작업의 새로운 부분으로, 해외의 한국문학에 대한 자료집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료의 정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작품활동 난을 더욱 강화하여 해당 문인의 작품세계에 대한 비평 및 평가가 좀더 자세하여졌으면 하는 욕심을 부려보고 싶다. 일찍이 작가 김용성이 「한국 현대문학사 탐방」을 통해 그러한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이 문인대사전이 명실상부한 한국문학 자료의 보고이자 문학사의 내용증빙에 이르는 완결성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적어도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한국문학을 연구하려는 이에게는, 이제 이 사전이 필독의 서가 되기에 족하다.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친 인내와 노고에 대해 문단의 후진으로서 경의를 표하며 권교수의 계속적인 연구 저술활동과 더불어 한국문학사의 충만한 복원이 한층 가속화되길 요망하는 바이다.